

Comparing Risk Assessments of School Field Trips between Korea and the UK

Kyung Hwoi Kim[#], Jae Hun Jung⁺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34da-gil Bomun-ro, Seongbuk-gu, Korea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risk assessments of school field trip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n schools is comparable to that of UK schools, but several differences were discovered. First, Korean schools encourage parents' participation as a formal element of risk assessment, while UK schools emphasize professional assistance from external institutions. Second, UK schools assess all on-site activities during school field trips, whereas Korean schools assess only the safety and hygiene of the facilities. Third, Korean assessors check whether the facilities follow safety regulations, but UK assessors control residual risks based on quantitative risk estimation. Fourth, the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system in the UK requires all outdoor activity facilities to release their safety information to the public.

Key words: school trip, risk assessment, safety management, school safety in the UK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과 진로체험교육의 활성화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Sohn, *et. al.*, 2014). 현장체험학습¹⁾은 이동 수단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과 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학습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기도 한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

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들은 안전 행동수칙과 이를 안내하는 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간행 보급한 2014년 '안전한 진로체험 안내서', 2014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길라잡이', 2015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그리고 2016년 '학교안전 위험성진단 매뉴얼'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학교와 인솔자(보조교사 포함)가 숙지해야 하는 안전 수칙 및 학생의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종합 정리한 안내서이면서도 일선 학교와 교사를 규율하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띤다.

[#] The 1st author: Kyung Hwoi Kim, Tel. +82-2-920-7161, e-mail. kimkh1019@sungshin.ac.kr

⁺ Corresponding author: Jae Hun Jung, Tel. +82-2-929-7673, e-mail. koreanist@hanmail.net

1) 현장체험학습활동은 교과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5).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짧은 기간에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을 규율하는 지침들이 다수 생성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로 안전수칙이 많고 이를 이행하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체험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현상이다. 사고발생시 예상되는 책임문제와 사전점검 확인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체험활동 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안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형식화 현상이다.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하여 완화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는 민간기구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안전관리 요원 또한 그 자격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사고에 대한 예방 보다는 사고 이후의 사후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Lee, 2015).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전문성 있는 위험성평가에 근거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을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하는 이유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면서도, 산업부문에서 시작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가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이루지고 있기 때문이다(Jun, 2011; Kim, 2014). 영국은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학습자의 균형 잡힌 발달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 박물관 방문, 야외 활동과 모험 활동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경험을 부여하고 있다(DfE, 2014; HSE, 2011b; RoSPA, 2013).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생 안전문제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성평가 방식을 학교에 적용하여 위험을 사전 통제하는 모범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학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우리나라 학교안전 정책 형성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위험성평가에 실천적인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비교분석의 틀

1. 위험성평가

1) 의의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적지 않은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다(Jung, 2015).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위험성(risk)은 “안전을 훼손시킬 주관적인 우려상태 또는 그러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된 상태”로 정의된다(Cha & Pyo, 2016: 16). 위험성과 관련된 어휘에는 피해(harm)와 위험요인(hazard) 등이 있는데, 피해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상해나 손상, 혹은 재산과 환경에 대한 손상”을, 위험요인은 “피해의 잠재적 원천”을 의미한다(ISO/IEC, 2014).

위험성평가는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는 의미로서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크기에 따라 확실히 예방대책(감소조치)을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Jung, 2015: 39). 모든 위험이 우리의 생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위험은 수용 가능(acceptable)하거나, 허용 가능(tolerable)하기도 하다. 따라서 안전이란 위험 요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본래 보험 산업에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책임과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였으나, 산업안전과 보건 영역에 도입되면서 고용주가 근로자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 업무상 재난을 회피하는 활동이 되었다(Jun, 2011). 위험성평가는 1989년 유럽경제

공동체(Europe Economic Community)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채택한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에 포함되면서, 유럽의 각국에서 법제화를 통해 확대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EU-OSHA, 2017; Jung, 2014). 199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가이드(Guide on Risk Assessment at Work)’를 제작하여 회원국에게 보급하기도 했는데, 이후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안전관리의 기법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춰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3년 1월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Jung, 2014).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도입된 이유에는 날로 복잡해져가는 산업 현장의 변화(Jung, 2014; Kwon, *et. al.*, 2010; Russ, 2010),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 있다(Jun, 2011).

이상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를 학교 밖 교육활동에 특정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위험성평가는 현장체험학습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학생 및 지도 교사 등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추정하며, 위험성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절차와 방법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의 파악(identification), 위

험성 추정(estimation), 위험성 결정(evaluation), 통제방안 마련, 기록의 작성 및 공유라는 5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Jung, 2015). 위험성 추정이란 위험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위험성은 재해의 심각성과 재해의 발생가능성에 의해 추정될 수 있는데, 발생가능성은 접촉(노출)의 빈도 및 시간, 위험사건의 발생확률, 재해의 회피 또는 제한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위험성 결정은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자의 경험적 주관성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분류하는 단계로, 조직의 목적과 내·외부 환경에 근거해 어떤 위험성에 대해 감소조치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치의 이행순위를 결정하는데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비교분석의 준거

위험성평가 방식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가 담당자, 과정 및 절차, 평가 기준, 사후 조치, 그리고 학부모 참여 등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아래 <Table 1>처럼 위험성평가의 주체, 중점 점검 사항, 절차, 위험성 추정 방식, 위험성 완화 조치, 학부모 동의서 내용을 준거로 삼아 한국과 영국의 위험성평가를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학교

한국과 영국의 중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영국의 경우 주영한국교육원의 추천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Table 1. Criteria of comparative analysis

	Criteria	Definition
Risk Assessment	Assessors	Who assesses the risk?
	Check Items	What are the main check items?
	Process	How do teachers assess the risks?
	Risk Evaluation	How do teachers evaluate the risk?
Follow-ups	Risk Reduction	What do teachers do to reduce the risks?
Preparation	Parental Consent	What do parents consent?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schools compared

	K middle school	M School
Country	Korea	UK
Type	Public/Coed	Private/Girls
Year established	1983	1955
Grades	7~9	6~12
Number of Teachers	54	44
Number of Students	762	260

국의 경우 서울시 은평구 소재 K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영국의 M중등학교는 사립학교로 영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야외 체험활동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교육표준청(Ofsted)을 대신해 학교 교육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있는 독립학교감사단(Independent Schools Inspectorate)의 2015 종합감사(Integrated Inspection)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화재와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내부 정책과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ISI, 2015). 한국의 K중학교 또한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 시 현장답사와 함께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 대상이 된 두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2) 표적집단 면담

2017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구진이 영국 교육부, M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참여관찰 및 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고 관련자료 수집하였다. 면담을 위해 연구진은 사전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었고, 질문지는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서 면담 대상자에게 사전에 배포되었다.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전문성에 맞춰서 질문지 가운데 해당 분야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K중학교 교장과 학년 부장 2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22일 K중학교에서 심층 면접하였다. 면담 이외에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침서와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영국의 경우 학교안전을 담당한 보건안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의 경우 시·도교육청 발간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 밖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학교 방문 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식별원리(the Identification Principle)를 활용하여 한국과 영국의 차이점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 질적 연구 자료(면담 및 문헌)의 해석에 있어서 공동 연구자 2인은 자료 해석과 기술 방식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하는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실시하여 오독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III. 한국과 영국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위험성평가 사례 분석

1. 한국 K중학교

K중학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매년 5월에는

Table 3. Interviewees in the UK

Visiting Place	Name	Division/Posi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Susan W.	Head of teacher regulation and safer recruitment policies and health and safety team
	Mark S.	Team Leader of School Employment Division
M School	J. Lee	Teacher of Korean
	Nicholas M.	Vice Headmaster

2학년 대상의 수련활동과 3학년 대상의 교육여행(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년부장이 현장체험활동과 관련된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 위험성평가의 주제

K중학교의 경우 매년 3월 초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가 조직된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9인으로 구성되는 활성화위원회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의 장소, 프로그램 내용, 활동 경비 등에 대한 심의와 현장답사를 통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에도 5월에 활성화위원회 소속 학부모 2인과 학년부장 및 담당 교사가 현장답사를 실시했는데, 참여했던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B교사는 현장 답사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가시는 분들은 모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학부모의 입장으로 봐 달라고 해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자는 곳도 꼭 확인하려 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러나 점검항목이 많고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현장 답사팀은 사전에 점검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식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절차

활성화위원회는 수련활동과 교육여행에 관한 학부모의 동의와 학생들의 선호에 근거해 장소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낸 후, 입찰에 입한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현장답사 시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전에 입찰에 응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해야 했고, 체크리스트의 항목이 너무 많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B교사는 이와 같이 설명했다.

“[체크리스트가] 워낙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숙박업소의 식당, 소화기, 화장실이며 다 보고 체크를 해야 하고, 승강기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계약 대상이 되는 3개 업체를 한꺼번

에 다 체크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현장 답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 결재 후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후 계약 후 사전 답사가 있으나 K중학교의 경우 생략하고 있다. A교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교육부 지침에는 두 번 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 번 답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산과 시간 사정상 계약 전 현장답사만 가고, 계약 후 사전답사는 생략하고 있어요.”

경찰청 및 소방청에 요청하여 이용 예정 업체의 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도 한다. 예컨대 2017년 5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갈 때 K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과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체와 식당, 체험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였다.

3) 중점점검 내용

현장답사는 일차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체험활동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안전 위생 상태 및 유해환경 인접 여부, 교육 현장 주변의 위험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련 및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① 위생관리, 검증된 식수 제공 여부 확인, ② 위생 검증 업체의 도시락 이용, ③ 숙박시설의 안전 여부 확인(베란다 및 창문을 넘나들 수 없게 조치), ④ 인근 유해환경 유무 확인을 해야 한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청에 위생·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밖에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① 일정 숙지, ② 비상연락망 구축, ③ 운송업체 계약서,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 명시, ④ 계약 서상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 일치 여부 확인, ⑤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로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요청, ⑥ 관할 경찰서로 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 측정 등) 공문 요청 등이 있다.

Table 4. Checklist for school trips

Stage	Items	Check
Preliminary Survey	Is this an appropriate schedule for students' developmental stage?	
	Are the selected places related to the school curriculum?	
	Is the trip effectively planned?	
	Did you check the room arrangement plan(entrance and exit)?	
	Is the facility equipped with a fire protection system?	
	Is it possible to control fire arms inside the room?	
	Is it adequate for the number of guests per room?	
	Is a descending device in the room working well?	
	Is the outside of the facility(near the road) safe?	
	Are the business license and the liability insurance certificate provided?	
	Are the kitchen and dining area clean?	
	Is the food menu appropriate for the season?	
	Is it safe to get from the parking place to the facility?	
	Did you identify the hazards in the destinations(the faciliti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Did you identify the hazards in a variety of situations?		
Planning	Does the transportation schedule include a map to get into and out of vehicles?	
	Does each travel schedule include a safety plan for the students' movements?	
	Do you have measures to take for the hazards found in the in situ survey?	
	Did you plan a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students?	
	Did you plan a night safety education program?	
	Are you aware of the students who need medical attention?	
	Do you have an action plan for accidents?	
on-going	Did you offer preventive education for accidents?	
	Did you check the number of students prior to and after the departure?	
	Did you prepare a first aid kit and other items for the accidents?	
	Did you often check the students' health condition(especially before and after sleeping)?	
	Do students carry prohibited items?	
	Do students enter dangerous areas?	
	Do group leaders offer preventive guidance at designated places?	

4) 위험성 추정방식

K중학교는 체험처의 안전점검을 위해 상황별로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 <Table 4>는 실제로 K중학교에서 사용한 교육여행(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다.²⁾ 여기에는 답사, 계획, 시행 3단계에 걸쳐 29개의 점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박 3일로 외부 숙박과 식사, 장거리 여행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숙소와

식당(음식)에 대한 점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27개 항목), 식사 점검 체크리스트(20개 항목),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10개 항목) 등 3종이 답사, 계획, 시행 단계 별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출발 전에 사용하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12개 항목)와 교통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32개 항목), 교육여행 일정 중 활용하는 운전자 점검 체크리스트(출발 전 3항목과 도착 후 3항목을 매일 실시)가 있다. 이는 K중학교 3학년 학

2) 이 밖에도 수련활동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수상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갯벌 체험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산행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캠핑(야영) 활동 점검 체크리스트, 전시·공연 관람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 총 8종의 체크리스트를 보여 주었다. 이 체크리스트들은 평균 17.8개 점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의 2박 3일 교육여행을 위해 총 148개 항목을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 현장답사 시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최소 51개에 이른다.

답사 단계 점검사항 중 “여행일정 예정지의 안전 위협 요소(시설, 주변 환경 등) 확인은 하셨습니까?”와 “일정 중 체험 상황에 따른 상황별 예상되는 위협요소 확인은 하셨습니까?”, 계획 단계의 “답사 시 확인된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라는 문항 등 확인 여부만을 묻고 있어 실질적인 위협 발생 가능성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위험성 완화 방식

교육부가 사고예방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사전단계에서 일선학교에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Cha & Pyo, 2016;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첫째, 수련활동의 경우 시설 종합 평가 결과가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만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³⁾ 둘째,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50명 이상)의 경우 학생 50명당 1인의 안전교육 이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14시간)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채용 전 필히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셋째, 체험활동 실시 전에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별(선박·항공·기차 등)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 점검결과로 위험성이 식별되었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학부모 동의서

K중학교 사례를 보면, 학부모 동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활성화위원회에 의해 수련활동 혹은 교육여행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 여부가 장소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조사된다. K중학교의 경우 학부모 70퍼센트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활동과 교육여행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이 실제로 운영되기 직전에 가정통신문이 배포되어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때에는 참가 여부뿐만 아니라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불참 사유, 질병을 앓고 있다면 주요 증상,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 중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영국 M중등학교

영국은 「1974년 사업장 내 보건안전 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과 「1999년 사업장 내 보건과 안전 관리 규정(the Management of Health &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에 근거해 5명 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작업 활동과 관련한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Jun, 2011; RoSPA, 2012; Russ, 2010; Sohn, *et. al.*, 2014). 같은 법령에 근거해 학교의 고용주격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견된 위험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1993년 카약을 타던 청소년 네 명의 익사 사고 발생 이후, 영국 정부는 「1995년 활동센터(청소년안전)법(Activity Centres(Young Person's Safety) Act 1995)」과 「1996년 모험활동 자격규정(the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Regulations 1996)」을 제정하여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고, 노동복지부(Department

3) 인증여부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f Work and Pensions) 산하에 모험활동 자격청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Authority)⁴⁾을 설치해 인증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Ball-King, *et. al.*, 2013).

2002년에 현장체험학습을 위축시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세의 초등학생 한 명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익사하였고, 무리하게 진행한 담당 교사에게 지도 책임을 물어 일 년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HSE, 2002). 이 사건 이후에 야외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영국 학교에서의 야외 교육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Select Committee on Education and Skills(2005)는 체험교육의 가치를 강조하여 야외교육(outdoor education)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현장학습지도교사(Educational Visits Coordinator)⁵⁾와 같은 전문 교사 양성을 권장하였다. 또한 Lord Young of Graffham (2010)은 학교의 교실, 실험실, 워크숍, 스포츠 시설과 같이 다양한 교육 상황에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위험성평가 양식을 보건안전청이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M중등학교에서 미술관과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방문(educational visits)에서 위험성 평가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위험성평가 주체

영국의 경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수업의 일환으로 교사의 판단에 따라 희망 학생을 모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년별·부서별로 다양한 체험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 활동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출결을 관리한다. 체험학습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Kim, 2014).

위험성평가는 누구나 위험요인(hazard)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담당 교사가 실시한다. 체험학습 주관교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전에 체험학습활동의 위험성 평가를 하여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위험성평가는 체험학습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이 결정된다. 학교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위험성 평가를 하여서 가정통신문과 함께 현장학습지도교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영국 교육부는 단위학교로 하여금 현장학습지도교사 확보를 권장하고, 만약 현장학습지도자가 없을 경우 이를 교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DfE, 2014).

위험의 수준이 높은 경우 교장은 교육청(Local Authority)의 체험학습전문가(Outdoor Education Adviser)와 협력하여 야외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온라인 연수가 활성화되어 교사들의 연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2) 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체험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건안전청은 기본적으로 (1) 위험요인의 확인, (2) 피해의 대상과 방식 확인, (3) 위험 평가 및 예방책 마련, (4) 주요 발견 사항의 기록, (5) 평가 검토 및 필요시 업데이트와 같이 다섯 단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DfEE, 1998; HSE, 2006; Jun, 2011; NAHT, 2015). 위험성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DfE, 2016).

야외 체험활동을 위한 위험성평가는 교사가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는 계획 단계에서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DfE 2010). 예

4) 2004년 「모험활동 자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 관련 업무는 2007년에 보건안전청으로 이관되었다.

5) 현장학습지도교사(Educational Visits Coordinator)는 교육여행계획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말한다.

Table 5. Example of the whole class visit to open farm the UK

Hazard involved with the activity/process: Infection, Bitten, ...					
Residual risks	Risk Rating(1~5)				
	Likelihood	x	Severity	=	Rating
Cryptosporidium	3	x	3	=	9
Bitten by animal	3	x	2	=	6
...		
Risk Rating					
1~5	Minimal Risk-Maintain Measure				
6~10	Low Risk-Review Risks				
11~15	Moderate Risk-Additional Controls in 12 months				
16~25	High Risk-Additional controls implemented immediately				

를 들어, 날씨의 변화, 환자의 발생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렇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성 재평가(reassessment)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중점 점검내용

야외 교육활동을 새로운 곳에서 시도하거나, 같은 장소라도 오랜만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야외 교육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M교감은 외부 활동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중점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부 활동(off-campus activities)시 위험성평가에서 일차적으로 주의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입니다.”

M교감이 언급한 것처럼 영국의 위험성평가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각 단계 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에는 이동 차량 승차 및 하차, 멀미, 차량 내 행동, 교통사고, 낙상 혹은 미끄러짐, 미아, 감염, 식중독, 부상 등이 있다.

4) 위험성 추정 방식

영국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이 템플릿을 활용해 체험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수준을 예측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잔류위험에 대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 추정은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 중 기존의 안전대책으로 통제될 수 없는 잔류위험의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발생 가능성(likelihood)은 매우 낮음(rare)에서 거의 확실함(almost certain)까지, 손상의 심각성(severity)은 대수롭지 않음(insignificant)에서 재난적임(Catastrophic)까지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한다. 발생 가능성에 심각성을 곱한 값이 1~5인 경우는 최소한의 위험수준이며, 16~25는 매우 위험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Table 5>는 유치원생들이 양 농장에서 양 사육 현장 학습할 경우의 위험성 추정 사례이다.

5). 위험성 완화 방식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이후에는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교사는 모든 위험요인을 위험수준 5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양식이 다음의 <Table 6>이다. 이렇게 교사에 의해 작성된 위험성평가는 현장학습지도교사나 학교장의 검토를 받아 최종 승인을 받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6. Implementation of controls and monitoring form

Additional controls required to reduce risks below rating of 5			
Additional controls agreed Yes/No. If 'Yes' details the action to be taken.			
Target date for implementation			
signed		Teacher responsible for Activity/Process	
Assessment Review			
Date implemented	Prior to trip	Controls Effective	Y/N
Comments			
Signed		Headmaster	

6)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영국은 단위학교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성평가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지게 전문적 조언을 하는 외부 교육기관들이 있다. 영국 교육부의 W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교육부는 학교가 영국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야외 활동의 위험성 평가에 비영리 전문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위험성평가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 학교와 담당 교사는 OEAP(the Outdoor Education Advisers' Panel)를 통해 전문가 혹은 전문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DfE, 2014). 아울러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와 방문기관에 의해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위험성평가는 체험 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체험기관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정보도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스터셔-워윅셔 스트림 철도(Gloucestershire Warwickshire Stream Railway)

에서 제공한 위험평가 자료에 따르면 참가 학생이 11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학생 10명당 성인 감독자 1명 이상이 동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비상사태를 대비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병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방문 전에 책임자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⁶⁾

모든 모험활동 시설은 「1996년 모험활동 자격 규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 밖 학습 품질 배지(the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Quality Badge)’는 학교가 신뢰하고 수영 레슨과 해외여행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인가 및 인증 시스템은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 체험활동의 위험성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학부모 동의서

영국에서는 학생의 야외 체험활동 참여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최초 등록 시 학부모로부터 ‘학교 여행 및 야외 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Consent form for school trips and other off-site activities)’를 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이후 어떤 교육 활동이든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따르면 학부모는 (1)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의 참여, (2) 응급처치 및 긴급 치

6) Gloucestershire Warwickshire Stream Railway에서 제공하는 ‘Risk Assessment for visits by schools and other groups’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gwsr.com/userfiles/documents/gwr_visit_risk_assessment.pdf

료에 대해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건강 상태와 질병에 관한 의학적 정보(Medical information)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M중등학교는 동의서를 받기에 앞서서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한다. L교사는 학부모 동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외부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정리하여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야외 활동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에는 알레르기나 천식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기록해 학교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교육부 W씨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해외여행과 같이 비교적 긴 여행의 경우 여행에 앞서 별도의 학부모 모임을 개최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는 여행 일정과 함께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안내해 준다. 특히 알레르기(특히, 견과류) 등 의학적 특이 학생에 대한 배려로 구급비상용 소지 교사를 명기토록 하고 알레르기 비상처치 교육을 받은 교사나 학부모가 동행을 의무화한다(Kim, 2014).

IV.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

1. 유사점

영국과 한국 모두 체험학습활동에서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안전유난중’이 이라고 할 정도로 엄밀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생과 인솔자 보험 가입, 교원의 현장 입장지도 의무화 등은 두 나라 다 같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체험활동 중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진 점도 유사하다. 둘째로 체험학습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두 나라 공히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과 조언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두어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있는 점도 비슷하다. 한국은

학교안전책임관 혹은 안전부장, 영국은 현장학습지도교사(Educational Visits Coordinator, EVC)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청소년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있으며, 영국은 현재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모험활동 주관 단체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두 나라 공히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인 체험학습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장소와 시기, 체험활동 구성 등에서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영국은 학부모와 학생이 여러 가지 현장체험 활동 중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차이점

영국과 한국 모두 체험학습활동에서 위험성을 통제하려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 면에서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위험성평가 주체: 교사+학부모 vs 교사+전문기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위험도를 한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사후에 사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지라도 전문성 있는 현장 점검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영국에선 인솔교사가 책임 하에 위험성 파악하고 위험도를 계상하여 현장학습지도교사(Educational Visits Coordinator) 혹은 교장의 검토를 거쳐 위험성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현장학습에 관련된 연수를 받고 지방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학습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와 담당 교사는 OEAP(the Outdoor Education Advisers' Panel)를 통해 전문가 혹은 전문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DfE, 2014).

2) 위험성평가 항목: 시설안전·위생 점검 vs 현장교육활동 점검
한국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는 숙박시설, 식

당, 교통수단, 체험시설 등 다양한 업체가 안전 및 위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평상시 안전과 위생이 제대로 완비되었으면 별도 점검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현장체험활동에서 교사 등 인솔자가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위험도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컨대 유치원생들이 양 목장에 견학 활동을 가정하면 양에게 물릴 가능성과 양으로부터 감염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위험도를 산출한다.

3) 위험성 평가 수준:

위험요인 파악 vs 위험성 계량적 추정

영국의 학교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실 안전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HSE, 2011a). 하지만 야외 활동의 경우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M중등학교를 포함해 영국 학교에서는 잔류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5단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수준 측정에 있어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손상의 심각성을 곱하는 승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직관에 근거한 상대적인 평가이지만 다양한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을 추정하고, 위험수준에 근거해 상이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K중학교는 상황별·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 및 확인 유무만을 기록하고 있다. <Table 4>의 체크리스트에는 위험요소 식별과 통제 방안 수립이라는 위험성평가의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위험성 추정방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위험성평가의 방법론이 소개되지 않았기에 그 실효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현장학습 이용기관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

빈약 vs 풍부

우리나라에서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제주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⁷⁾’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는 학교가 사전답사를 통해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체험시설 안정성 점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현장체험시설(특히 모험 활동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기관은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체험기관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

Table 7. Comparison of risk assessment between K middle school and M secondary school

	K middle school	M secondary school
Assessor	- Teachers and parents in the School Trip Committee	- Teachers - Educational Visit Coordinators - Head teachers - Outdoor Education Adviser
Process	- In situ examination by using checklists	- 5 Step approach to risk assessment
Check items	- compliance with safety-related regulations, hazards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hotels, and restaurants	- hazards associated with outdoor education
Risk Evaluation	- not clearly defined - enforcement of regulations	- likelihood by severity (quantitative estimation)
Risk Reduction	- licensing training facilities - placing safety agents - offering preventive education for accidents	- controlling and monitoring hazards - licensing adventure activities -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quality badge - providers' own risk assessment
Parental Consent	- checking for a student' participation, diseases, and other information considered	- notifying teachers of student's diseases and food allergies - informing parents of their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ip

7) ‘제주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는 학교에서 제주도에 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내용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주도에서 해당학교에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 있으며, 안전 관련 정보도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 한 바와 같이 한국과 영국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영국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교의 위험성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였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각각 1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계획단계에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영국 못지않은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제도의 일관함과 정교함의 부족으로 영국의 위험성 평가에 비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는 위험성 평가자의 전문성 문제이다. 전문적 지식 없는 학부모와 교사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외형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서 그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둘째, 점검 평가항목의 과다로 인한 위험성평가의 형식화이다.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은 현장체험학습시설의 안전도와 위생상태 등 모두 148개에 이르는 등 과다할 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서 점검할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하여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평가항목으로 과다로 인한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부담은 현장학습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위험성평가가 위험성 파악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위험성 추정(심각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위험성을 완화하려는 조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장학습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현장학습 실시기관이 자체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학교가 이용시설안전에 대

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장체험학습의 계획과 이용시설 점검, 즉 위험성 평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교사의 현장 체험학습 위험성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3년에 15시간 학교안전에 관한 연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의 위험성은 체험활동의 종류에 따라 그 위험도와 발생가능성을 달리하므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는 사전에 이에 관련된 연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되, 연수비 지원을 통해 체험학습 연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크리스트의 점검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시설의 안전 상태와 위생 점검은 행정기관의 점검 결과로 같음하고, 행정기관은 점검결과를 학교 측에 통지해주는 행정서비스제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현장학습 진행과정에서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심각성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성평가의 계량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체크리스트는 학교 밖 교육 환경 속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위험수준을 측정하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영국처럼 위험요소를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으로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정교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장체험학습 주관기관의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현장학습기간 중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모든 현장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상태 평가를 통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고는 조사대상 학교 수가 각각 1개교로 한정되고 면담자가 소수여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 학교와 면접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비교 연구방법의 엄밀성이 제고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 S1A5B8A020)에서 획득한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References

Ball, King Laurence, Watt John, and Ball David J. 2013. The Rise and Fall of a Regulator: Adventure Sports in the United States. *Risk Analysis*. 33(1): 15-23.

Cha, U Kyu and Seok Hwan Pyo. 2016. *School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Education*. Yangseowon.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Manual for Field Experience Activities such as Educational Trip and Training Program*.

DfE. 2010. *Health and Safety of Pupils on Educational Visits: A Handbook for Group Leaders*.

DfE. 2014. *Health and Safety: Advice on Legal Duties and Powers for Local Authorities, School Leaders, School Staff and Governing Bodies*.

DfE. 2016.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EU-OSHA. 2017. *Directive 89/391/EEC –OSH “Framework Directive.”* <https://osha.europa.eu/en/legislation/directives/the-osh-framework-directive/1>

HSE. 2002. *Glenridding Beck-Investigation Report*.

HSE. 2006. *An Evaluation of the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HSE. 2011a. *Health and Safety Checklist for Classrooms*.

HSE. 2011b. *School Trips and Outdoor Learning Activities: Tackling the Health and Safety Myths*.

ISO. 2015. *ISO 31000: Risk Management*.

ISO/IEC. 2014. *Guide 51. Safety Aspects-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Jun, Hyoung Bae. 2011. The British System on Risk Assessment and Its Suggestions. *Labor Law Collection*. 21: 431-461.

Jung, Jin Woo. 2014.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at Workpla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9(3): 121-128.

Jung, Jin Woo. 2015. *Risk Assessment*. Junganggyeongje.

Kim, Eun Young. 2014. *UK Education Does not Collapse*. Joenddang.

Kwon, Hyuck Myun, et. al. 2010. Advanced Kore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with Risk Assessment. *Safety and Health at Work*. 1: 29-36.

Lee, Du Hyun. 2015. Safety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Based on Understanding of Space Activities Field Experience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 Education*. 27(4): 457-478.

NAHT. 2015. *Health and Safety in Schools*.

RoSPA. 2012. *Managing Safety in Schools and Colleges*.

RoSPA. 2013. *Planning and Leading Visits and Adventurous Activities: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Teach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5 to 18 Years*.

Russ, Karen. 2010. Risk Assessment in the UK Health and Safety System: Theory and Practice. *Safety and Health at Work*. 1: 11-18.

Select Committee on Education and Skills. 2005. *Second Report*.

Sohn, Hee Kwon, Sung Gi Lee, and Sook Yi Kim. 2014. *A Study of the Single Act of Accidents in and out of Schools*. Sungshin University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WHO. 1998.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Young of Graffham. 2010. *Common Sense, Common Safety*. HM Government.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교육부. 2015.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김은영. 2014. 영국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좋은 땅.

손희권, 이성기, 김숙이. 2014.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 연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두현. 2015. 현장체험학습 활동 공간이해에 근거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89-104.

전형배. 2011. 영국의 위험성 평가와 시사점. 노동법총론. 21: 431-461

정진우. 2014.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실시에 관

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9(3): 121-128.

정진우. 2015. 위험성평가 해설. 중앙경제.

차우규, 표석환. 2016. 학교안전관리와 안전교육. 양서원.

Received: Jul. 18, 2017 / Revised: Aug. 28, 2017 / Accepted: Aug. 30, 2017

한국과 영국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험성평가 비교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한국과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영국과 한국의 중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한국은 영국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제도의 정교함이나 운영의 내실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은 교사와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위험성평가의 형식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외부전문 기관의 조언으로 교사의 위험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영국은 위험성평가 항목이 현장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에 한국은 이용시설의 안전·위생 상태 점검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위험성 파악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영국은 위험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경중에 따라 위험성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영국에서는 현장학습 실시기관의 안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고 위험 체험기관 인증제를 통해서 체험실시기관의 안정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위험성평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장학습 안전 점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현장체험학습,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영국의 학교안전

Profiles **Kyung Hwoi Kim** : He is a professor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head of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kimkh1019@sungshin.ac.kr).

Jae Hun Jung : He is a research fellow of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koreanist@hanmail.net).